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청소차 200대 운영

'저비용 고효율' 염수 분사 시설기 눈길 제주시, 건설과 자체 제작 시설 취약지 사용 효과

■ 제주도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방안 로드맵 확정 2025년 생산실증 진행... 2030년 읍면 권역별 기지 구축 2050년 생산기지 대용량화·그린수소 도외 공급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제거(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2050탄소중립 계획에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실천과 선도적 전환 모델 제시를 목표로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에너지 전환 로드맵-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생산과 수소 에너지 활용·전환, 산업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진행한다. 수소 트램·수소 선박을 연구·실증하고 수소버스를 올해 9대 운행에서 2025년까지 100대로 늘린다.

도내 전력의 50%이상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연료원을 그린수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력 공급을 모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LNG복합발전기의 수소 혼소를 50% 이상 확대하고 신규 LNG 도입 시 수소 발전 및 수소 전소터빈을 도입하고 내연, 기력 발전기 등 점차적으로 수소 전소터빈으로

전환한다.

이어 2030년까지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읍·면·동별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버스를 100대에서 300대로 확대한다. 청소차는 50대에서 200대로 확대한다.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 수소 생산기지 대용량화를 진행한다. 도내에 대용량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도외 공급도 추진한다. 관광버스(1800여대)와 화물차 등 민간 분야로 수소 이용을 확산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도 보급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소 산업 육성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확대 시 주유소와 카센터, 내연자동차 부품업체 등 고탄소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 에너지 사용 현황을 보면 석유류 60.7%, 전력 32.0%, 가스

류 1.8% 신재생 및 기타 5.5%이다.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 대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3만2976대로 도내 운행 차량 대비 8.05%를 점유하고 있다.

제주도의원 A씨는 "수소버스 구입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하고 현재 고탄소 업계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수소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구의 온도가 2°C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폭설에 대비해 제주시 건설과에서 자체 제작한 소형 염수 분사 장치가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등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형 염수 분사 장치는 이면 도로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당 500만원을 들여 구입해야 하는 기성품과 비교해 80만원 정도를 투입해 제작한 이 분사 장치는 휴대가 간편하고 1t 트럭에 탑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실제 제주시에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폭설 때 현장에서 직접 소

형 염수 분사 장치를 사용한 결과 차량 운전자 혼자서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조작이 간편하고 제설 효과도 우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고체형의 고상 제설제 살포기 활용 시 발생하는 제설제 분진이 없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건설과장은 "고장이 낮을 때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등 기성 제품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과 장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3억 투입 450명 대상... 연 1회 40만~70만원 제공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45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020년 404명·2억7000만원, 2021년 404명·2억7000만원, 2022년 449명·2억970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무주택가구이다. 다만 공공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부양의무자 주택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기준은 임대료 금액에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시 70만원이며 연 1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공간정보 활용 융·복합 산업 활성화"

제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및 전자지도 구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추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GIS) 사업 및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통해 도시계획·개발, 지하시설물 매설 등 각종 사업의 기본도로 활용되는 전자지도를 구축 완료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상수관로 데이터베이스(DB) 전수 조사와 노후관로 재탐사를 통해 오류 데이터를 찾아 수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주시 전지역·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상수관로(약 88km)에 대한 매설위치, 심도 등 데이터를 갱신해 정확도를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전자지도방식의 탐사기술을 활용해 높은 정확도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했으며 시설물 공사, 도로굴착 등의 행정업무로 활용됐다.

올해에는 한경면, 대정읍, 안덕

면 지역을 대상으로 약 94km의 상수관로 정확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형·지물이 크게 변경된 지역과 제작이 오래된 지역을 선정, 지난해 제작한 33km²(132도엽, 남원읍, 표선면 일원)지역을 포함해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86km² 지역의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성산읍 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다양한 행정업무와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김장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수치지형도와 지하시설물은 각종 공사, 도시계획 및 국토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그물수선작업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한 어민이 그물 수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들불축제 푸드트럭 모집 청년·취약 계층 등 대상

제주시는 2023 제주들불축제 기간에 운영할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푸드트럭 모집 대수는 총 12대다. 이 중에서 6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29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 모집 대상으로 한다. 영업 기간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로 들불축제 푸드트럭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본인 소유의 푸드트럭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우선 모집 대상일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참고. 문의 728-1451-3.

전선회기자

"드림타워는 169m 제주시민의 아파트는 35m"

노형동 도시계획 주민토론회 (건축고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일정 | 2023년 2월 21일 (화)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한라수목원)

좌장 박정근 :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장)
-발표자 : 하창현(도시계획학 박사)
-토론자 : 한중범(도의회 전문위원) 등

· 주관 : 노형동 발전협의회(회장 송용중)
· 후원 :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 노형새마을금고, 제주양돈농협

문의 : 064)747-3835, 010-3274-5010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동우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2월 14일(화요일) 19:00
- 장 소 : 메종글래드 제주(1층 컨벤션홀)
- 대 상 : 전 동우회원

○ 연락처 : 사무총장 강정석(18기) 010-5699-4030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회 장 문 성 윤